

固体 推進剤의 燃燒速度 推定을 위한 새로운 函數 関係式의 導出

許炳琪*·睦榮一

*亞洲大学校 綜合研究所 亞洲大学校 工科大学
 (1982년 7 월 10일 접수, 1983년 11월 8 일 채택)

A New Approach to the Burning Rate Correlation of Solid Propellants

Byung Ki Hur*, Young Il Mok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Ajou University
 College of Engineering, Ajou University, Suwon Korea
 (Received 10 July 1982; accepted 8 November 1983)

要 約

固体推進剤의 燃燒에 있어서 固体表面과 生成된 燃燒氣体사이에 薄膜의 氣相反應領域이 存在한다는 燃燒模型을 設定함으로써, 理論的 根據를 가진 새로운 燃燒速度式 $BR = k(\frac{1}{RT})^n \exp(-\frac{Ea}{RT})(\frac{P}{Z})^n$ 을 誘導하였다. 特히 本 研究에서는 燃燒速度式의 展開에 있어서 對應相態理論의 壓縮係數를 導入함으로써, 燃燒領域내에 存在하는 實際氣体의 燃燒反應을 非理想氣体의 으로 处理할 수 있었다.

提示된 燃燒模型의 堅實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세가지 타입의 複合固体 推進剤의 実測值를 提示 模型의 計算值와 比較檢計하였다. 그 結果를 보면 提示模型에 의한 計算值가 燃燒室內壓이 낮을 경 우는 물론 높은 경우에도 実測值에 잘一致하였다. 特히 燃燒室內壓이 1,000 psia以上인 경우에 提示模型은 널리通用되고 있는 實驗的 燃燒模型, $BR = ap^n$ 또는 半理論的模型, $1/BR = A/P + B/P - \frac{1}{3}$ 에 比해 越等함을 알수 있었다.

Abstract—By assuming an effective, rate determining "reaction layer" between the decomposition and flame zones, a new theoretical relation for burning rate of the form, $BR = k(\frac{1}{RT})^n \exp(-\frac{Ea}{RT})(\frac{P}{Z})^n$, has been deduced where BR = burning rate, k , n = constants, Ea = activation energy, Z = mean compressibility factor, P = combustion chamber pressure and T = temperature of reaction zone. Inclusion of compressibility factor in the equation permitted the application of the concept to real situations prevailing in actual design and analysis of propulsion systems.

The proposed model was tested visa vis experimental data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burning rates predicted by the proposed model is in excellent agreement with the measured values at high as well as low combustion chamber

pressures. It was also shown that this model is indeed superior to the conventional empirical model, $BR = ap^m$ where $a, m = \text{constants}$, and the semiempirical model, $1/BR = A/P + B/P^{1/2}$ where $A = \text{chemical reaction time parameter}$ and $B = \text{diffusion time parameter}$, particularly in the region where the combustion chamber pressures exceed 1,000 psia.

1. 諸論

固体推進剤의 燃燒메카니즘에 関한 研究는 멀리 15세기의 로켓트誕生과 함께 시작되어 그 年輪을 같이하고 있다. 그 동안의 研究結果는 크레인設計解析, 로켓트의 性能豫測 等 이 分野에 至大한貢獻을 하였고 드디어 1900年代에는 인간이 달에 着陸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燃燒메카니즘은 利明을 위하여 많은 研究가 進行되었고, 또 상당한 進歩가 있었으나, 그 메카니즘을 完全히 理解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知識과 經驗이 未洽한 것이事實이다. 持久推進機関의 燃燒室內壓이 높아질수록 그 機構가 複雜하여 지며豫測이 점점어려워 지게된다[1-4].

理在까지 잘 알려져 있는 燃燒速度 方程式으로는 le Saint Robert 法則이라고 칭하는

$$BR = ap^m \quad (1)$$

또는 그의 変型인 方程式(2)가 있으며

$$BR = b + ap^m \quad (2)$$

Seinz-Summerfield에 의하여 研究된, 理論的 바탕에 根據를 둔 方程式(3)을 들 수 있다[1-3].

$$\frac{1}{BR} = \frac{A}{P} + \frac{B}{D} \quad (3)$$

위의 燃燒方程式들은 固体推進剤의 燃燒速度를 計算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式들에 의하여 計算된 燃燒速度는 内圧이 約300psia에서 1,500 psia까지의 範圍에서는 実測值을 比較的 잘代表하고 있다. 그러나 燃燒室內圧이 1,500psia以上에서는 多小의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研究結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이方程式들이 推進剤의 燃燒機構를 理論的으로 充分히 代辦하고 있지 못하다는證據이기도 하다.

固体推進剤의 燃燒速度에 影響을 미치는 因子로는 固体推進剤를 形成하고 있는構成成分에 따른 内의因子와 週邊環境條件에 의한 外의因子로 大別할 수 있다. 構成成分에 의한 内의因子로는 推進剤

의 組成成分과 各組成의 重量比, 酸化剤粒子의 表面的, 燃燒解媒를 考慮할수있다. 外의因子로는 燃燒室의 内圧, 推進剤의 初期温度, 燃燒表面을 지나가는 燃燒氣体의 流速等을 열거할수있다[3-9].

위의 모든因子들中 燃燒室內圧은 주어진 推進剤에 있어서 그의 燃燒速度에 가장支配적인 影響을 미치는 因子이다. 本研究에서는 이에 대한 研究가 重占의으로 다루어졌다. 固体推進剤表面으로부터 分解되는 氣体에 의해 形成되는 薄膜의 反應領域를 速率領域으로 假定하고 이領域内에서의 化學反應을 說述함으로써 推進剤의 燃燒速度式을 理論的으로 誘導하였다. 誘導된 方程式의 堅實性을 立證하기 위하여 計算된 燃燒速度와 実測值을 比較検討하여, 燃燒室內圧이 1,500psia以上인 경우는 물론 그 以下인 경우에 대하여도 誤差가 極小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 燃燒메카니즘

推進剤를 点火시키기 위해서는 적당한 量의 热量이 필요하다. 点火를 위해 필요로하는 热量은 推進機関의 一部인 点火시스템에 의하여 공급된다. 폴리부타디엔을 メトリ克斯로 하는 固体推進剤의 自動點火温度는 300°C以上이라는 것이 実驗結果로 알려져 있다.

Nitrocelluse 및 Nitroglycerine의 二成分 推進剤의 燃燒메카니즘은 比較的 잘알려져 있다[2, 17, 18]. Nitrocellulose-Nitroglycerine推進剤의 燃燒는 多空層(Foam Zone), 氣泡層(Fizz Zone) 및 火焰層(Flame Zone)의 세가지 서로 다른燃燒領域에서 서로의 連関性를 유지하면서 일어나며 上記의 3層이 推進剤表面과 平行하여 形成됨과 동시에 固体表面에서 消耗되는 物質이 이層들을 連續的으로 通過하면서 變化되어 간다고 貝象化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순간 推進剤의 表面을 重直으로 斷絶하면 위에 언급한 3 가지燃燒領域을 同時에 発見할수있다. 燃燒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않는 固体燃料層은 氣泡層및 火

焰層으로 부터의 热傳導와 主가되는 辐射熱에 의하여 加熱되어서 推進剤의 一部가變化 그리고 氣化되면서 分解가 일어나며 이 氣体는 酸化하면서 에너지를 放出한다. 氣泡領域에서 生成된 生成物들은 反応을 계속하여, 最終에는 燃燒室 内部가 等压火焰温度에 도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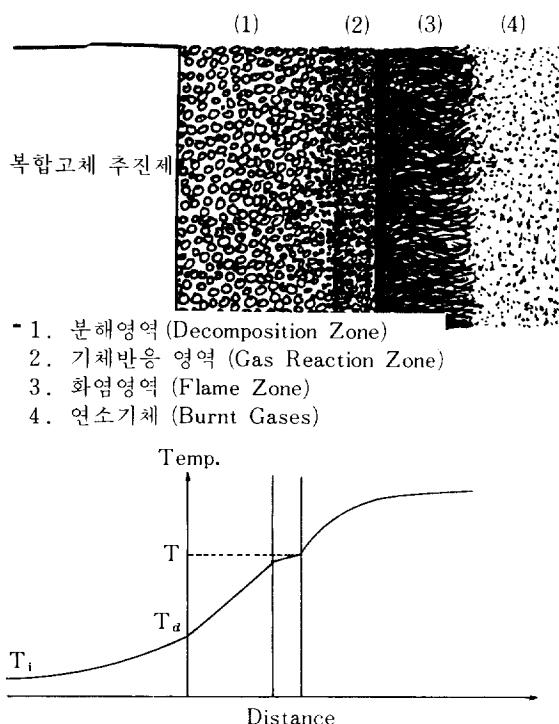
複合推進剤의 燃燒는 Nitroglycerine-Nitrocellulose推進剤의 燃燒메카니즘과 전혀 다른 메카니즘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본다. 複合推進剤內에는 酸化剤와 燃料가 異質相으로 同時に 存在하기 때문에 燃燒의 어느 순간에 推進剤의 燃燒表面에 垂直한 斷面을 보면 酸化剤成分이 燃料成分보다 풍부한 部分과 그 반대의 傾向을 갖인 部分을 発見할 수 있다. Cole[11], Sutherland[19] 및 Siller[20]는 燃燒表面 아주가까이에서는 涡流現象을 発見하지 못하였으며, Derr[21] 및 Sutherland[19]는 Spatial Radiation Emission方法에 의하여 氣体火焰領域내에서 氣体의 不均一性을 觀察하였다. 또 다른 研究結果[22-24]에 의하면 Ammonium Perchlorate複合推進剤의 燃燒表面은 아주乾燥하거나 혹은 약간의 용융現象이 일어나나 燃燒메카니즘側面에서 볼 때에는 燃燒表面이 과피될 만큼 流動이 심하지 않으므로 表面은 딱딱한 固體라고 看過할 수 있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되었다. Hightower[25] 및 McGark[26]는 AP推進剤에서 燃燒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는 固體部分에서는 化學反応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研究結果를 發表하였다. Levy 와 Friedwan[27]은 複合推進剤의 氣相反応領域에 関한 研究로, 燃燒領域의 두께가 燃燒室 内压에 따라서 变하나 数マイクロ를 以下라는 結論에 이르게 되었다.

本研究에서는 위에 열거한 여러 研究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燃燒메카니즘을 假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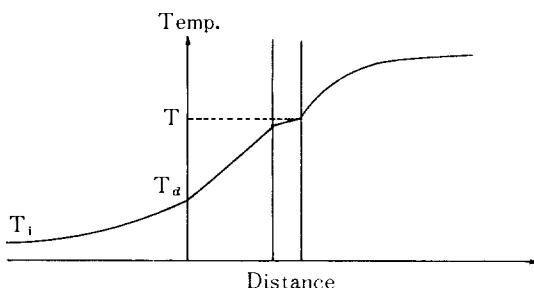
1) 複合推進剤의 燃燒는 Figure I에 表示된 것과 같이 分解領域, 氣体反応領域, 火焰領域의 세 가지 서로 다른 領域으로 区分할 수 있다.

2) 燃燒는 推進剤의 表面에서 垂直한 方向으로一次元의 으로 進行되며, 推進剤의 燃燒表面에 平行한 層에서 連續의 으로 일어난다.

3) AP複合推進剤의 燃燒表面은 乾燥한 狀態이며, 아직 燃燒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固體層에서는 化學反応이 일어나지 않는다. 热分解에 의하여 推進



- 1. 分解영역 (Decomposition Zone)
- 2. 기체반응 영역 (Gas Reaction Zone)
- 3. 화염영역 (Flame Zone)
- 4. 연소기체 (Burnt Gases)



T_i : 추진제의 초기온도 (Initial Grain Temperature)

T_d : 분해온도 (Decomposition Temperature)

T : 반응평균온도 (Average Reaction Temperature)

Fig. 1. Combustion Zones vs. Temperature Profile

剤의 表面에서 発生되는 氣体는 混合되지 않는 狀態로 氣体反応領域으로 流入된다.

4) 燃燒가 일어나고 있는 각 領域의 氣体의 부피는 燃燒室 内压의 函数로써, 壓力에 따라서 一定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순간 어떠한 領域에 存在하고 있는 氣体의 mole數는 隣接領域에서 化學反応에 參여하고 있는 氣体의 mole數와 特定한 函数關係를 갖는다. 燃燒表面에서 热分解한 氣体로 形成된 分解領域內에서의 氣体mole數는 氣体反応領域內의 氣体mole數와 函数關係에 있기 때문에 氣体反応領域內의 反応氣体의 mole數에 따라서 分解領域內의 氣体mole數가 定해진다. 이에대한 速도真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反応氣体의 mole數는 燃燒表面에서 分解되는 氣体의 mole數를 制郊하게 된다. 환연하면, 分解領域의 부피와 氣体反応領域의 부피는 燃燒室 内压에 比例하여 变하나 각 領域에 存在하는 氣体의 mole分率 및 組成은 燃燒室 内压의 变化에도 불

구하고 推進剤의 組成特性에 따라서 定해지며, 그 濃度만이 内压에 따라서 变한다.

5) 氣体反応領域에서는 氣体사이에 化学反応 및 扩散에 의한 混合이 同時에 일어나고 있으나 酸化氣体가 燃料氣体로 扩散되는 速度가 化学反応에 比해 빠르기 때문에 燃燒速度를 좌우하는 것은 氣体反応領域내의 氣体의 化学反応 速度이다.

6) 氣体反応領域의 두께는 대단히 얕아서 이領域의 平均 温度는 燃燒室內压와 的關係없이 推進剤의 組成 및 外的 因子에 따라서 定해진다. 위의 여러 가지 假定으로 부터 얻어진 燃燒速率에 關한 物理的 模型을 數學的으로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3. 燃燒速率의 数學的 模型

固体推進剤의 燃燒速率는 다음 關係式으로 表現 할수있다.

$$BR = f(P, T_i, T_f, V_g, G, O/F, C-P, O-P) \quad (3)$$

위式에서 週邊環境과 條件에 의한 外的因子로는

P : 推進機関의 燃燒室 内压

T_i : 推進剤의 初期温度

T_f : 燃燒 火焰温度

V_g : 燃燒表面을 지나가는 燃燒氣体의 流速

G : 推進剤 그레인의 形狀因子

模成成分에 따른 內的因子로는

O/F : 酸化剤와 燃料의 混合比

C-P : 推進剤 組成及 各 組成의 重量比

O-P : 酸化剤 粒子經의 分布

式(3)의 여러 变數들은 相互間의 函数關係를 가지면서 각각이 燃燒速率에 影響을 미치게 된다. 物質數支에 따르면, 氣体反応領域内에서 反応하여 燃燒氣体로 变하는 單伊時間當氣体의 重量은 燃燒表面에서 單位時間當 分解되는 推進剤의 重量과 同一하게 된다. 따라서 固体推進剤의 燃燒速率式(3)은 다음과 같이 表現된다.

$$BR = f(P, T_i, T_f, V_g, G, O/F, C-P, O-P)$$

$$= \frac{dL}{dt} = \frac{d}{dt} \left(\frac{V_p}{S_p} \right) = \frac{1}{P_p S_p} \cdot \frac{dW_p}{dt}$$

$$= \frac{M_d}{P_p S_p} \cdot \frac{dN_d}{dt}$$

$$= \frac{M_R}{P_p S_p} \cdot \frac{dN_R}{dt} \quad (4)$$

여기서 L, t, V_p, S_p, P_p, W_p, M_d, N_d, M_R 및 N_R의 意味는 사용기호에서 說明된 意味를 갖는다. 어떤 反応領域内에 存在하는 氣体分子 A, B, … D의 化学反応 速度는 下式으로 表現된다.

$$r = \frac{dN_R}{dt} = k_1 \cdot C_A^{\alpha} \cdot C_B^{\beta} \cdots C_D^{\delta} \quad (5)$$

式(4)와(5)를 組合하면 燃燒速率에 關한 式(6)을 얻을 수 있다.

$$\begin{aligned} BR &= \frac{M_R}{P_p S_p} \cdot k_1 \cdot C_A^{\alpha} \cdot C_B^{\beta} \cdots C_D^{\delta} \\ &= k_2 \cdot \exp(-\frac{E_a}{RT}) \cdot C_A^{\alpha} \cdot C_B^{\beta} \cdots C_D^{\delta} \end{aligned} \quad (6)$$

式(6)에서 C_A, C_B, … C_D는 氣体反応領域에 있는 氣体의 mole濃度로서 下式들을 사용하여 各成分 氣体의 分壓으로 代置시킬수 있다.

$$\frac{N}{V} = \frac{P}{ZRT} \quad (7)$$

여기서 Z는 氣体反応領域의 平均壓縮係數로써 各成分 氣体壓縮係數와 mole分率의 積의 合이다.

$$C_i = \frac{N_i}{V} = \frac{P_i}{Z_i RT}, \quad i = A, B, \dots, D \quad (8)$$

$$N = \sum_{i=A}^D N_i \quad (9)$$

$$P_i = \frac{N_i}{N} \cdot \frac{Z_i}{Z} \cdot P, \quad i = A, B, \dots, D \quad (10)$$

式(6), (7), (8), (9) 및 (10)으로 부터 燃燒速率式을 式(11)과 같이 定義되는, 氣体反応領域의 平均 温度, 燃燒室의 全壓 및 氣体反応領域의 mole分率의 重変數 분리되는 函数의 積으로 表現할수 있다.

$$BR = k_2 \cdot f(T) \cdot g(P) \cdot h(\text{mole fraction}) \quad (11)$$

式(12)는 위의 關係式들로 부터 誘導된 固体推進剤의 燃燒速率式이다.

$$\begin{aligned} BR &= k_2 \cdot \exp(-\frac{E_a}{RT}) \cdot \left(\frac{1}{RT} \right)^n \left(\frac{N_A}{N} \right)^{\alpha} \left(\frac{N_B}{N} \right)^{\beta} \\ &\quad \cdots \left(\frac{N_D}{N} \right)^{\delta} \left(\frac{P}{Z} \right)^n \end{aligned} \quad (12)$$

여기서 n = α + β + … + δ

앞에서 언급했듯이 氣体反応領域内에서 度應氣体

의 mole分率은 推進剤의 組成函數로써 一定하다고假定하였기 때문에 式(12)에서 項 $(\frac{N_A}{N})^a (\frac{N_B}{N})^b \dots (\frac{N_D}{N})^d$ 는 一定하게된다.

反應領域의 平均溫度 역시 組成의 函數도 一定하므로 式(12)는 式(13)과 같이 表現할 수 있다.

$$\begin{aligned} & \frac{1}{RT} e^{-n} \exp \left(-\frac{E_a}{RT} \right) \cdot \left(\frac{P}{Z} \right)^n \\ & = k_3 \left(\frac{P}{Z} \right)^n \end{aligned} \quad (13)$$

여기서 k_3 는 反應平均溫度와 反應氣體 mole 分率의 函數이다. 만일 反應領域内에 存在하는 氣體들이 理想氣體와 같이 動한다고하면 Z가 1.0이 되므로 式(13)은 다음式과 같이 簡化된다.

$$BR = k_3 \cdot P^n \quad (14)$$

위의式은 諸論에서 언급했던 le Saint Robert의 경형식과一致하게 된다.

4. 新しい 模型에 関한 試驗評価

위에서 誘導한 新しい 模型을 試驗評価하기 위하여 부타디엔폴리머를 メトリクス로 한 AP複合 固体推進剤를 選定하여, 그들의 燃燒速度를 Atlantic Research Co.의 Model735의 STRAND BURNER를 이용하여 測定한 자료를 문헌[28]에서 인용하였다. 本研究에 인용된 AP複合 固体推進剤의 組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Propellant Type L, M &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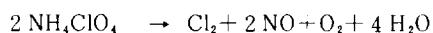
Type	AP (Wt%)	Binder (Wt%)	Al (Wt%)	Total (Wt%)
L	70	14	16	100
M	80	16	4	100
N	82	16	2	100

本研究에서 誘導된 式(13)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分解氣體의 成分을 알아야 되며 이를 기제로 形成된 反應領域의 臨界壓力 및 臨界溫度를 알아야 한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推進剤를 組成하고 있는 主要成分들이 热分解를 할 때 氣體成分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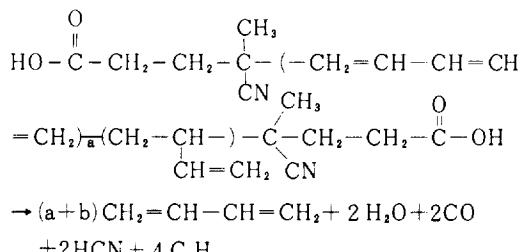
a) 推進剤을 形成하는 主要成分의 热分解

Ammonium Perchlorate의 热分解에 카니즘에 대하여는 여러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다[4, 11, 12]. 그러나 다른 成分들에 대한 分解機構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각 成分들로 부터 热分解하여 生成되는 氣體를 結合에너지[13, 14]와 物質係支를 이용하여假定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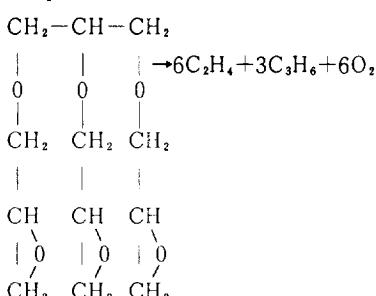
○ Ammonium Perchlorate



○ 부타디엔 폴리머



○ Epoxide



6) 燃燒室 内壓에 따른 燃燒速度

Pseudo Critical-Point Method를 이용하면, 推進剤의 热分解로 生成된 混合氣體의 臨界溫度와 臨界壓力을 計算할 수 있다. Table II은 L, M, N, 3 가지 타입의 AP複合推進剤의 臨界溫度 및 臨界壓力에 関한 計算結果이다.

Table. 2 Critical Temperatures and Critical Pressures of Propellant Types L, M, and N

Type	Critical Temperature (OK)	Critical Pressure (atms)
L	427	130
M	428	130
N	431	131

反応領域의 温度는 아직까지 그 計算方法이나 実驗結果가 알려져 있지 않다 [3]. 다만 이 温度는 推進剤의 組成의 函數로써 組成變化에 따라서 큰 差異를 나타낸다. 따라서 混合氣体의 温度를 다음過程을 通하여 求하였다. 燃燒室內壓은 알려져 있는 因子이기 때문에 混合氣体의 換算壓力을 計算할 수 있다. 壓縮係數線圖 (generalized Compressibility factor), 計算된 換算壓力, 燃燒室內壓 및 測定 燃燒速度를 式(12)에 이용하여, 計算된 燃燒速度와 測定 燃燒速度 사이의 標準偏差가 最小가 되도록 하는 燃燒持性值 K, 및 n, 換算溫度를 求하면 Table 3 와 같다.

Table. 3 Calculated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Propellant and its Reduced Temperature

Term Type	k_s	n	Reduced Temperature (T_r)
L	0.0524	0.348	Higher than 3
M	0.0155	0.423	1.30
N	0.0257	0.407	1.30

Figure 2 는 燃燒速度의 実測値과 式(12) 및 (1)을 이용한 計算値를 表示하고 있다. 이 結果에 의하면 式(12)를 이용한 計算値가 式(1)을 이용한 計算値보다 実測値에 더욱 接近함을 알 수 있다. 特히 燃燒室內壓이 1,500psia 以上인 경우에는 式(1)의 結果値는 実測値에서 상당히 벗어나나 式(12)의 結果値는 実測値에 充分히 接近함을 알 수 있다. 推進剤 타입L인 경우에는 式(1)과 式(12)의 計算結果사이에 差異가 없으며 이는 燃燒室 内部의 温度가 상당히 높아서 反応領域의 反応氣体가 理想氣体와 같이 舉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推進剤의 組成에 따라서 燃燒室 内部의 断熱火焰 温度가 定해지며, 断熱火焰 温度가 充分히 높아서 反応氣体가 理想氣体로써 舉動할 경우에는 높은 壓力下에서도 燃燒速度를 計算하는데 式(1)을 잘 이용할 수 있다. 断熱火焰 温度가 充分히 높지 않는 경우에는 反応氣体가 理想氣体와 같이 舉動하지 않으므로 이를 둘 사이의 補正因子인 壓縮係數의 導入이 必要하다. 特히 燃燒室의 内壓이 1,000psia 以上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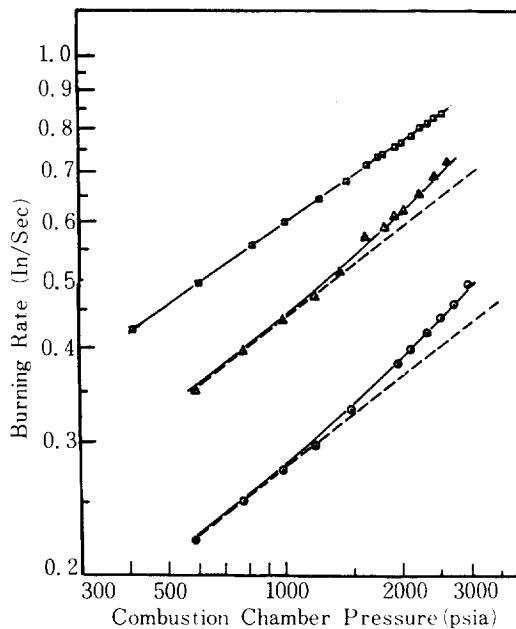


Fig. 2. Burning Rates Data Plotted to Test Validity of Equation 13.

- : Measured Burning Rates of Propellant Type L
- △ : Measured Burning Rates of Propellant Type M
- : Measured Burning Rates of Propellant Type N
- - : Calculated Burning Rates

$$\text{by } BR = K_1 \left(\frac{1}{RT} \right)^n \exp \left(-\frac{E_a}{RT} \right) \left(\frac{P}{Z} \right)^n$$

- : Calculated Burning Rates
by $BR = ap^m$

에는 이 補正因子의 考慮가 반드시 必要하나 300psia에서 1,000psia範圍의 燃燒室內壓에서는 式(1)로써도 燃燒速度 計算이 安全하다고 볼 수 있다.

5. 結論

本研究는 現在까지 經驗的으로 사용되어 오던 推進剤 燃燒速度式에 대한 燃燒 메카니즘의, 反応工學의 究明에 큰意義가 있다. 特히 燃燒室內壓이 1,000~1,500psia 以上인 경우에 대한 燃燒機構 利明에 하나의 動機가 될 것이다. 本研究의 結果를 다음 몇 개의 項으로 要約할 수 있다.

1) Aluminium의 重量%가 16%인 推進剤 타입L은 推進剤 燃燒領域의 反応 温度가 높아서 反応氣体

가 비교적 理想氣体에 가깝게 行動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燃燒速度式(1)과(12)의 計算結果가 同一하게 된다.

2) 推進剤타입이 M, N인 경우에는 Aluminium의 重量%가 각각 4 % 및 2 %로서, 이들이 燃燒할 때 燃燒室의 断熱火焰溫度가 타입L에 比하여 充分히 낮게 된다. 따라서 反應領域內의 氣體들의 行動特性이 理想氣体의 行動特性에서 많이 벗어난다. 特히 燃燒室內壓이 높은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3) 燃燒室內壓을 300psia에서 1000psia로 推進機閥을 設計할 경우에는 燃燒速度式(1)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推進剤를 形成하고 있는 各組成의 热分解로生成되는 分解氣体에 대한 正確한 研究結果가不足하고, 各氣体成分에 대한 臨界溫度 및 臨界壓力에 関한 資料가不足하여, 本研究의 結果인 式(12)로 計算된 값과 実測值와의 偏差가多少 發生하였다.

本研究는 固體推進剤 燃燒機構利明에 関한 발단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研究가 필요하다. 特히 本研究가 앞으로의 燃燒工學 發展에 조그만 기여가 되기를 희망한다.

* Nomenclature *

- A : Chemical reaction parameter, $\text{psia} \cdot \text{sec} \cdot \text{in}^{-1}$
- a : Constant of burning characteristic, $\text{in} \cdot \text{sec}^{-1} \text{psia}^{-m}$
- B : Diffusion Parameter, $\text{psia}^3 \cdot \text{sec} \cdot \text{in}^{-1}$
- C_i : Mole concentration, moles/in³
- E_a : Activation energy of gas reaction in reaction zone, cal/g-mole
- k₁ k₂ k₃ : Constants of burning characteristic
- k₁ : Reaction constant
- L : Length, in
- M_d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decomposed gas mixture, grams
- M_r : Average molecular weight of reaction gas mixture, grams
- m : Constant of burning characteristics, dimensionless

- n : Constant of burning characteristics, dimensionless
- N : Total number of moles of reaction gases in reaction zone
- N_i : Number of moles of each gas component in reaction zone
- N_d : Number of moles of decomposed gases
- N_r : Number of moles of reaction gas in reaction zone
- P_i : Partial pressure of reaction gas in reaction zone, psia
- P : Combustion chamber pressure, psia
- R : Universal gas constant, cal g⁻¹ · mole⁻¹ oK⁻¹
- r : Chemical reaction rate, moles · sec⁻¹
- S_p : Propellant burning surface, in²
- T : Average gas temperature of reaction zone, oK
- t : Time, sec
- V_p : Volume, in³
- W_p : Weight, grams
- Z, Z_i : Compressibility factor, dimensionless
- $\alpha, \beta, \dots, \delta$: Order of reaction with respect to each component, dimensionless
- ρ_p : Solid propellant density, grams · in⁻³

* References *

1. Rocket and Space Science Series, Vol 2, "Propellants", Chapter 7, Amateur Rocket Association (1967).
2. Warren, F. A.: "Rocket Propellants",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N. Y. (1960).
3. Boyers, C. and Klayer, K.: "Propellant Manufacture, Hazards and Testings", American Chemical Society, Washington, D. C. (1969).
4. Penner, S. S.: "Advances in Tactical Rocket Propulsion", pp 76-125, Circa Publication Inc., N. Y. (1968).
5. Rumbel, K. E., Grover, J., Cohen, M. and Stcurlock, A. C.: Army-Navy-Air Force Solid Propellant Meeting, 19th (May 1953).

6. Steing, J. A., Stang, P. L. and Summerfield, M.: AIAA Preprint 68-658 (June 1968).
7. Duwez, P. and Wheeley, H. L.: J. Aeronaut., **15**, 1509 (1948).
8. Mickley, H. S., Ross, R. C. Squyers, A. C., and Stewart, W. E.: NACH TN 3208, (Kuly 1954).
9. Larry, J. S. and Eugene, F. P.: AIAA Journal, **2**, 168 (Jan. 1968).
10. Powling, J. and Smith, W. A.: Combustion and Flame, **7**, 269-275 (1963).
11. Cole, R. B. an Wenograd, J.: Princeton University, Aerospace Mech. Su. Rept. 446-0 (June 1965).
12. Jacobs, P. M. M. and Whitehead, H. W.: Chem. Rev., **69**, 551 (1969).
13. Isaacs, N. S.: "Reactive Intermediates in Organic Chemistry", McGraw-Hill (1972).
14. Moor, W. J.: "Physical Chemistry", Fourth Edition, Prenticehall, (1972).
15. Smith, J. M. and Van Ness, H. C.: "Introduction to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Third Edition, McGraw-Hill, (1975).
16. Crow, A. D. and Grimshaw, W. E.: "The Combustion of Colloidal propellants", Trans, Roy. Soc. (London) **A230**, 387 (1932).
17. Taylor, J.: "Solid Propellant and Exothermic Compositions", Interscience Publishers, (1959).
18. Crawford, B. S., Juggett, C. and McBrady, J. J.: "Mechanism of Doule-Base Propellants", J. Phys. Chem. **54**, 854-862 (1950).
19. Sutherland, G. S.: Ph. D. Thesis, Princeton University (Sept. 1958).
20. Silla, H.: ARS J. **31**, 1277 (1961).
21. Derr, R. L. and Osborne, J. R.: CPIA Publ, **162**, 491 (Dec. 1967).
22. Hightower, J. D. and Price, E. W.: Symp. Combust., 11th, 467 (1967).
23. Schultz, R. D. and Dekker, A. O.: Aerojet. General Corp. Repot. **576** (1952).
24. Bastress, E. K.: Ph. D. Thesis, Princeton University (Jan. 1961).
25. Hightower, J. D. and Price, E. W.: CPIA Publ. **105**, 421 (1966).
26. McGurR, J. L.: CPIA Publ. **68**, 345 (1965).
27. Levy, J. B. and Friedrnan, R.: Symp. Combust. 8th, 663 (1962).
28. Hur, B. K.: "Theoretical Aspects of Burning Rate Changes with respect to Pressures in the Combustion Chamber of Solid Propellants", Technical Report, Agnecy for Defense Development (Dec. 1977).